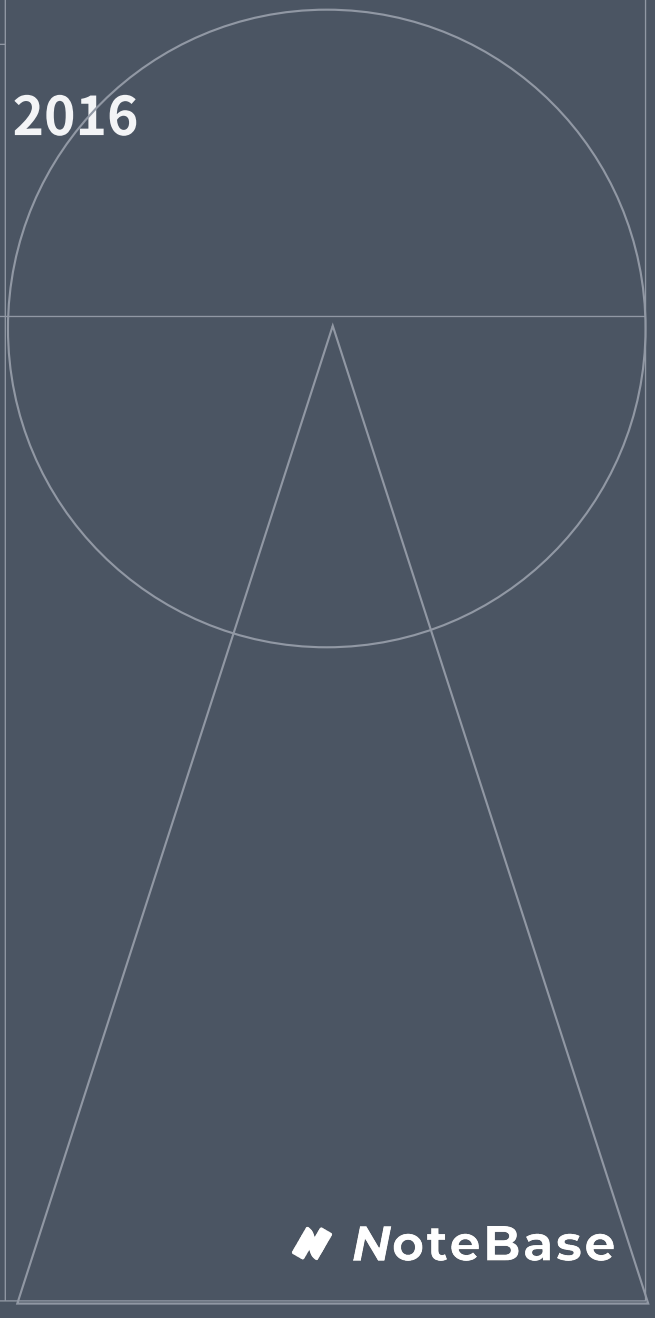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6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6

문 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flash - 플래시

② shrimp - 쉬림프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④ Newton - 뉴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shrimp'의 [⌧]는 자음 [r] 앞에 있으므로 **'슈'**로 적는다. 따라서 '쉬림프'는 **'슈림프'**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flash'의 [⌧]는 단어 끝에 있으므로 **'시'**로 적는다. [æ]는 '애'로 옮기므로 '플래시'가 된다.

② X: 'shrimp'의 [⌧]는 자음 [r] 앞에 있다. 영어 표기 세칙에서 자음 앞의 [⌧]는 **'슈'**로 적으므로 '쉬림프'가 아니라 '슈림프'로 써야 한다. 같은 [⌧]라도 어말에서는 '시',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는 차이가 있다.

③ O: 'presentation'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적는다. 첫 부분의 [e]는 '에'로, 뒤의 [e⌧]는 '에이'로 옮기므로 **'프레젠테이션'**이며, '프리젠테이션'으로 쓰지 않는다.

④ O: 인명 'Newton'의 한글 표기는 '뉴턴'이다. 끝부분 [t⌧n]의 [⌧]는 **'어'**로 적으므로 '뉴튼'이나 '뉴톤'으로 쓰지 않는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가다가는'에서 '는'은 다른 대상과의 대조가 아니라 **강조**의 뜻을 더한다. 천천히 가는 행동이 계속되면 지각할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다가는'의 '는'은 연결 어미 '-다가'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이 문장은 천천히 가는 행동이 계속되면 지각할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므로,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을 '강조의 뜻을 나타냄'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웃지만 말고'의 '만'은 행동을 **웃는 것으로 한정**한다. 웃는 행동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말도 하라는 뜻이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③ O: '단추대로'의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낸다. 단추를 다른 물건과 섞지 않고 따로 모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④ O: '바람조차'의 '조차'는 이미 포함된 것에 **다른 것을 더함**을 나타낸다. 비가 오는 상황에 바람이 부는 상황까지 더해졌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교씨의 악행이 드러나 벌을 받고 사씨가 누명을 벗는 결말은 **일이 결국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성어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공통 해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이 결국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한때 부당한 일이 벌어졌더라도 마지막에는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황에 쓰인다.

제시문에서 사씨와 유한림은 교씨의 모함으로 고난을 겪지만, 결국 교씨의 악행이 드러나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어 집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모함으로 어긋났던 일이 바로잡히는 결말**이 사필귀정의 의미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둘씩 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참가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면서, 그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② 인간은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③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행복해 한다.

④ 인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같은 일을 같은 노력으로 했을 때, 보수를 더 받거나 덜 받은 사람은 똑같이 나누어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했다. 이는 보수의 액수 자체보다 **노력에 맞는 공평한 보상**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두 사람은 같은 일을 같은 노력으로 했으므로, 조당 보수 5만 원을 각각 2만 5천 원씩 받는 것이 공평한 분배이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과도한 보상에 부담을 느꼈고, 2만 원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껴 모두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했다. 따라서 **같은 노력에 대해 공평한 보상**을 받을 때 더 행복해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X: 실험에서는 참가자와 파트너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보수의 차이를 능력에 대한 평가와 연결한 내용은 없으며, 더 많은 3만 원을 받은 사람도 오히려 부담을 느꼈다. 이 결과가 뒷받침하는 것은 남보다 능력을 인정받는 데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보상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행복**이다.

③ X: 참가자들은 모두 둘씩 조를 이루어 일했다. 따라서 이 실험에는 **협력할 때와 협력하지 않을 때를 비교한 결과가 없다**. 행복감의 차이는 협력 여부가 아니라 보수를 공평하게 나누어 받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나타났다.

④ X: 보수는 연구원이 차등 지급했으며, 참가자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자발적으로 양보한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2만 원을 받은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덜 행복해했다. 이 실험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때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맞는 몫을 받을 때의 행복**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文明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①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④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로마를 먼저 보라는 권유는 문명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의 가치관과 미래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므로, **문명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필자가 로마를 먼저 보라고 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행 순서에 관한 권유는 **문명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시한 것이며, 글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이러한 성찰에 바탕을 둔 가치관의 필요성이다.

② O: 필자는 로마를 문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로 제시한다. 이어 문명관이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고, 과거 문명을 보는 시각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문명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현재의 가치관과 미래 문명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③ X: 로마인의 자부심은 로마를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을 설명하는 부분에 등장한다. 필자는 '그러나' 이후 로마를 먼저 보라고 권하며, 그 이유를 **문명을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로마인의 자부심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성찰하라는 취지이다.

④ X: 필자는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는 과거 문명을 벗어나거나 단절하자는 뜻이 아니라, **과거 문명에 대한 성찰을 미래의 전망으로 연결**하자는 뜻이다.

NoteBase

문 6.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성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 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① 시인의 생명(生命)

② 시인의 운명(運命)

③ 시인의 사명(使命)

④ 시인의 혁명(革命)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 글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시인이 민족의 재생을 격려하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사회적 역할**을 설명한다. 이러한 역할을 포괄하는 말이 '사명'이다.

핵심 풀이

글의 중심은 조국이 비운에 빠지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이 맡는 역할이다. 첫 문장의 '문화의 비싼 장식'은 평화로운 시대의 시인에 대한 설명이며, '그러나' 뒤에서는 시인이 **민족의 예언가이자 민족혼을 일깨우는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뒤의 세 사례는 이 역할을 구체화한다. 폴란드 사람들에게 시인은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는 존재였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단테는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이어 주는 상징이었고, 벨기에 사람들에게 베르하렌은 압제 속에서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이었다. 모두 시인이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사명'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를 뜻하므로, 이러한 **민족적·사회적 역할**을 포괄하는 제목은 '시인의 사명'이다. '시인의 생명'이나 '시인의 운명'은 시인 자체의 생명이나 삶의 향방에 초점을 두어 글의 중심과 어긋난다. '시인의 혁명'도 적절하지 않다.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시인이 혁명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 민족을 일깨우고 조국을 상징하는 역할이 글 전체의 공통 내용이기 때문이다.

NoteBase

문 7. ㉠~㉤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① ㉠: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② ㉡: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③ ㉢: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④ ㉣: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는 공부가 싫다는 뜻이 아니라,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 **기다림이 길게 느껴지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엄마 안 오시네'와 '어둡고 무서워'에서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해는 시든 지 오래'는 해가 진 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낸다. 시장에 간 엄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과 이어져,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 가는 시간의 경과**를 드러낸다.

② O: ㉡은 혼자 방에 남은 아이를 '찬밥'에 빗댄 표현이다. 식어 버린 밥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처지를 나타내어 **소외감과 외로움**을 드러낸다. 이는 혼자 남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며, 엄마가 아이에게 실제로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은 숙제를 아무리 천천히 해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숙제를 하는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기다림이 끝나지 않으므로, 아이에게는 시간이 더디게 느껴진다. 따라서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아니라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O: ㉣의 '금 간 창틈'은 집의 낡고 허술한 모습을 보여 준다. 엄마가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간 상황과 함께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을 짐작하게 한다. 그 틈으로 들리는 빗소리는 빈방에 혼자 있는 아이의 쓸쓸함도 더한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④ 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새벽빛이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은 **짧고 유한한 삶**을 상징한다. 인생을 잠에서 깨면 사라지는 '꿈'에 빗댄 표현도 삶의 덧없음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시의 '이슬'은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존재이다. 화자가 이슬과 함께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므로, 이슬의 사라지는 속성은 언젠가 끝나는 인간의 삶과 연결된다. 비교 기준은 **삶의 짧음과 유한성**을 드러내는가이다.

① '눈물': 어머니가 겪는 **슬픔과 고통**을 드러낸다. '진주를 만드신다'는 표현은 그 고통이 값진 것으로 바뀌는 모습을 나타낸다. 삶이 짧게 머물다 사라진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② '나뭇잎': '반짝이는'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웃음에 비유되어 **밝고 생기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사라지는 속성보다 반짝임과 웃음의 밝은 이미지가 중심이다.

③ '꿈': 잠에서 깨어 인생을 '한바탕 꿈'처럼 느낀다는 것은, 고되게 겪은 삶도 돌아보면 꿈처럼 짧고 덧없게 여겨진다는 뜻이다. 이는 이슬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삶의 덧없음**을 드러낸다.

④ '구름': '얽매인 삶'과 대비되므로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뜻한다. 구름이 사라진다는 점이 아니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모습에 초점이 있다.

삶의 짧음과 유한성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슬과 가장 유사한 상징 의미를 지닌 것은 ③의 '꿈'이다.

NoteBase

문 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광정(匡正) - 확정(廓正)

② 부상(扶桑) - 함지(咸池)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함지(咸池)'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을 뜻한다. 두 말은 **동쪽과 서쪽,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이 대립하는 반의 관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광정(匡正)－확정(廓正): '광정'은 잘못이나 부정한 것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고, '확정'도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둘 다 **잘못을 바로잡음**을 뜻하므로 유의 관계이다. 여기의 '확정(廓正)'은 어떤 일을 확실히 정한다는 '확정(確定)'과 한자와 뜻이 다르다.

② 부상(扶桑)－함지(咸池): '부상'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 바다를 가리키며, '함지'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을 가리킨다. **해 뜨는 동쪽과 해 지는 서쪽**이라는 대립을 이루므로 반의 관계이다.

③ 중상(中傷)－비방(誹謗): '중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해치는 일이고,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웃는 말을 하는 일이다. 두 말은 **남을 헐뜯는 말**이라는 의미를 공유하므로 유의 관계이다.

④ 갈등(葛藤)－알력(軋轢):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이다. '알력'은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이가 나빠지거나 충돌하는 일을 가리킨다. 두 말은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이라는 점에서 유의 관계이다.

①·③·④는 뜻이 비슷한 말끼리 짝지은 유의 관계이고, ②는 서로 대립하는 뜻의 반의 관계이므로 나머지 셋과 다르다.

NoteBase

문 1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김 교수의 '네. 그렇습니다.'는 진행자가 정리한 설명 내용이 맞음을 확인하는 응답이다. 앞서 한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것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이는 앞서 들은 구조적 특징에 이어 **전투 상황에서의 위력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다.

② X: 견해를 수정했다면 앞서 한 주장을 바꾸거나 바로잡는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판옥선의 평저 구조와 장점을 설명한 뒤, 진행자가 이를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고 정리하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한다. 이는 **자신의 설명에 대한 진행자의 이해를 확인해 준 것**이며, 진행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바꾼 것이 아니다.

③ O: 진행자는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김 교수는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구조와 장점을 설명한다. 부탁에 맞추어 **판옥선을 소개할 사례로 선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④ O: 진행자는 평저 구조의 특징과 장점을 들은 뒤, '결국'으로 말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뜻인지 묻는다. 이는 들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NoteBase

문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어버이이다.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그것하고'의 '하고'는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 '그것'에 붙여 쓴다.

공통 해설

조사는 다른 말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말이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어미 뒤에 조사가 오거나 조사가 연이어 쓰일 때에도 사이를 띄지 않는다.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에서 '하고'는 내 모자와 비교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것과 다르다'와 같은 관계이므로 '그것하고'로 붙여 쓴 표기가 옳다.

다른 문장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스승이라기 보다는'의 '보다'와 '는', '황소 같이'에서 '처럼'의 뜻으로 쓰인 '같이', '밥은 커녕'의 '커녕'은 모두 조사이다. 따라서 각각 **'스승이라기보다는', '황소같이', '밥은커녕'**으로 붙여 써야 한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② 이제는 안갚음할 때가 되었다.
- 안갚음: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볼썽이 아니었다.
- 볼썽: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안갚음'은 **자식이 자라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뜻한다. 남에게 받은 해를 되갚는 것은 **'앙갚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해미'는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를 뜻한다.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는 문맥과 뜻풀이가 일치한다.

② X: '안갚음'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또는 자식이 자라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뜻한다. 제시된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은 **'앙갚음'의 뜻**이다. '안갚음'의 뜻풀이는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로 고쳐야 한다.

③ O: '볼썽'은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를 뜻한다. '볼썽이 아니다'는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울타리의 흉한 모습을 드러낸다.

④ O: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를 뜻한다. 나무나 풀에 실제로 쌓인 눈이 아니라, 눈처럼 보이는 서리를 가리킨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벌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 처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③ 무슨 일인지 귓밥이 훅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딴지가 땅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내민 부분을 가리키는 표준어는 **'콧방울'**이다. '콧망울'은 비표준어이므로 '콧방울을 벌름거리면서'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콧망울'은 비표준어이다. 코끝 양쪽으로 방울처럼 둥글게 내민 부분은 **'콧방울'**이라고 한다. 따라서 '콧망울을 벌름거리면서'는 '콧방울을 벌름거리면서'로 고친다.

② O: '눈초리'는 표준어로, 귀 쪽으로 가늘게 좁아지는 **눈의 가장자리**를 뜻한다. 눈 끝이 아래로 처진 모양을 나타내는 이 문장에 알맞다.

③ O: '귓밥'은 **귓바퀴 아래쪽에 붙은 살**을 뜻하는 표준어로, '귓불'과 같은 말이다. 이 부분이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문맥에 알맞다.

④ O: '장딴지'는 **종아리 뒤쪽에서 살이 불룩한 부분**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등산 후 이 부분이 땅긴다는 문맥에 알맞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중에서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거사는 거울이 깨지는 것을 피하려고 겉은 흐린 채 두되, 속의 맑은 바탕은 보존하려 한다. 이는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보다 **본바탕을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처세**를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다'는 말은 내적 자질이 훌륭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못생긴 사람이 맑은 거울을 싫어한다는 설명에는 **자신의 결함을 직시하기 꺼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② O: 용모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단순한 외모 차이를 넘어 **도덕성·지혜·안목 같은 내적 자질**을 비유한다. 맑은 거울에 비친 추한 얼굴을 싫어하는 모습도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③ O: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거울을 닦겠다는 말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을 만날 때까지 본모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거울의 맑은 바탕이 속에 남아 있다는 설명과 연결하면, **내면의 가치를 간직한 채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처세관이 드러난다.

④ X: 거사는 맑은 거울이 깨지는 것보다 먼지로 흐려진 채 남아 있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이는 결백함을 앞세워 현실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현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내면의 맑음을 지키려는** 태도이다.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도 늦지 않다는 말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때를 기다리는 유연한 처세를 확인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제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① ㉠ -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② ㉡ -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한다.

③ ㉢ -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는'으로 수정한다.

④ ㉣ -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경원을 사다'는 남에게 꺼림을 받아 멀어지는 처지가 된다는 뜻이다. 이 문맥에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꺼려 멀리하지 말라는 뜻이어야 하므로 **'경원해서는'**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가 경쟁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뒤에서는 양극화의 심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그와 다른 방향의 주장을 이어 가므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따라서'보다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나'**가 적절하다.

② O: '떡 먹은 입 쓸어 치듯'은 어떤 일을 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단편적인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므로 맞지 않는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은 **이리저리 둘러맞추는 임시변통**을 뜻하므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 어울린다.

③ X: '경원하다'는 상대를 공경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꺼려 멀리한다는 뜻으로, '누구를 경원하다'처럼 쓴다. 반면 '경원을 사다'는 남에게 꺼림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멀리하지 말라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이 '욕하다'와 '경원하다'의 목적어가 되도록 **'경원해서는'**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이 문단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 활성화는 일자리와 서민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맥락에서 제시되어 있다.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를 촉진하자는 내용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와 빈부 격차 개선의 논지**에서 벗어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NoteBase

문 16.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③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④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아이들이 놀다 간'은 명사 '자리'를 꾸미는 **관형어**로 쓰였다. 관형어는 부속성분이므로, 서술어나 목적어로 쓰인 나머지 안긴문장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안긴문장은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기능하는 절이다. 이 문제에서는 절 내부의 주어나 서술어가 아니라, **절 전체가 안은문장에서 맡는 성분**을 판단한다. 주성분에는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가 있으며,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성분이다.

① '교정이 넓다'는 '그 학교'가 어떠한지를 풀이하는 서술절이다. 절 내부에서는 '교정이'가 주어이고 '넓다'가 서술어이지만, **절 전체는 '그 학교는'에 대한 서술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였다.

② '비가 오기'는 '비가 오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다. 여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비가 오기를'은 농부들이 무엇을 학수고대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명사절은 **목적어**로 쓰여 주성분에 해당한다.

③ '아이들이 놀다 간'은 어떤 자리인지를 밝혀 뒤의 명사 '자리'를 꾸미는 관형절이다. 이 절 전체가 맡는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부속성분인 관형어**이다. '아이들이'가 절 내부의 주어라는 사실은 관형절 전체의 기능과 구별된다.

④ '대화가 어디로 튈지'는 무엇을 몰랐는지를 나타내는 명사절이다.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몰랐다'처럼 목적격 조사 '를'을 붙일 수 있다. 원문에서는 조사가 생략되었지만, 절 전체는 '몰랐다'의 **목적어**로 쓰였으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관형어로 쓰인 ③이다.

NoteBase

문 17.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① ㉠ - 使嗾
② ㉡ - 間涉
③ ㉢ - 缺陷
④ ㉣ - 剔抉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간섭'은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뜻으로, 한자로 **干涉**이라 쓴다. '간'은 間이 아니라 **干**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사주(使嗾)'는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을 뜻한다. 적이 내부 기밀을 염탐하도록 시켰다는 문맥이므로 **使嗾**가 알맞다.

② X: ㉡의 '간섭'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한자는 **干涉**이므로, 선지의 '間涉'은 '干涉'으로 고쳐야 한다. '간섭할 간(干)'과 '사이 간(間)'을 구별해야 한다.

③ O: ㉢의 '결함(缺陷)'은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뜻한다. 선박이 흠이나 문제점을 지닌 채 출항했다는 문맥이므로 **缺陷**이 알맞다.

④ O: ㉣의 '척결(剔抉)'은 나쁜 요소를 깨끗이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한다. 비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문맥이므로 **剔抉**이 알맞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 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헤쳐 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박고 피를 빨아 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도 분명치 않다. 수컷의 몸길이는 2.5밀리미터, 암컷은 7.5밀리미터쯤으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沒頭)'라고 부르려 한다.
— 성석제, 「몰두」 중에서 —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사용해서

②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을 전개해서

③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④ 어떤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짐짓 받아들여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몰두'는 보통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쏟는다는 뜻이지만, 이 글에서는 **'머리가 잠긴다'는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진드기가 개의 살에 머리를 박고 파고드는 모습을 '몰두'라고 부르는 데서 웃음이 생긴다.

선지별 해설

① X: 소리가 같은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섞은 것이 아니다. **한 단어인 '몰두'의 일상적 의미와 글자 그대로의 의미** 사이의 차이를 이용한다. 온 정신을 쏟는다는 뜻의 '몰두'를 진드기가 살에 머리를 박는 모습에 적용한 것이다.

② X: 진드기가 개의 살에 머리를 박고 피를 빠는 모습을 설명할 뿐, 예상 밖의 엉뚱한 사건을 새로 전개하지 않는다. 웃음을 만드는 것은 사건의 반전이 아니라, 그 광경을 **'몰두'라고 부르는 뜻밖의 표현**이다.

③ X: 앞부분에서 진드기의 생김새와 생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마지막에는 '나는 그 광경을 … 부르려 한다'라며 **글쓴이의 주관적인 해석**을 드러낸다. 웃음의 핵심은 생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진드기가 머리를 박는 모습에 '몰두'라는 말을 붙이는 데 있다.

④ O: '몰두(沒頭)'는 일상적으로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쏟는다는 뜻이다. 글쓴이는 이를 '잠기다'라는 뜻의 '沒'과 '머리'라는 뜻의 '頭'로 풀어, **머리가 살 속에 잠기는 모습**에 적용한다. 정신을 집중하는 일을 나타내는 익숙한 말을 진드기의 신체적 행동에 짐짓 적용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델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쉐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델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똑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 (중략) …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에서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다른 인물의 대화를 듣고 그들을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라고 부르며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지적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전말을 폭넓게 서술한다. 이 글에서는 **작품 속의 '나'**가 직접 들은 대화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도 상대의 내면을 확정하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추측하는 말이다.

② O: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는 표현은 서술자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나'는 다른 인물의 말을 듣고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팔려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들을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라고 부른다. 따라서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X: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맞지만, 서술자의 위치를 '작품 밖'이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나'는 대화를 듣고 상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는 **작품 속 인물**이다. 관찰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작품 밖 서술자의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④ X: 처음에 '그들은'이라고 다른 인물들을 지칭하다가 뒤에서 '나는'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만, 이는 **같은 서술자가 타인과 자신을 구별해 부른 것**이다. 앞부분의 대화와 행동 묘사도 그 자리에 있는 '나'의 관찰로 이어지며, 작품 안팎의 두 서술자가 번갈아 서술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언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보기>
대화(1)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55 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너 몇 살이니?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점심은 뭐 먹을래?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① 대화(1):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② 대화(2):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③ 대화(3):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④ 대화(4):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대화(1)은 체중을 묻는 말에 체중과 관련된 내용을 답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다만 '키에 비해 가벼운 편'이라는 평가까지 덧붙여, 필요한 정보 이상을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원칙이다. 대화(1)의 '55 kg'은 질문에서 요구한 체중이고, '키에 비해 가벼운 편'이라는 말도 체중과 관련된 평가이므로 화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체중 수치만으로 충분한 질문에 평가까지 덧붙였다는 점에서는 **양의 격률 위배**로 설명할 수 있다.

② O: 질의 격률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원칙이다. 대화(2)의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은 사람의 달리기 속도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표현이다. 빠르게 달렸다는 인상을 강조하려고 **문자 그대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③ O: 양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는 원칙이다. 대화(3)에서는 자신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저는 열다섯 살'이라고 답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형이 열일곱 살'이라는 **요구되지 않은 정보까지 추가**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④ O: 태도의 격률은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원칙이다. 대화(4)의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점심 메뉴를 묻는 말에 **의사를 모호하게 표현**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NoteBase